

環境科學종합 연구단지 造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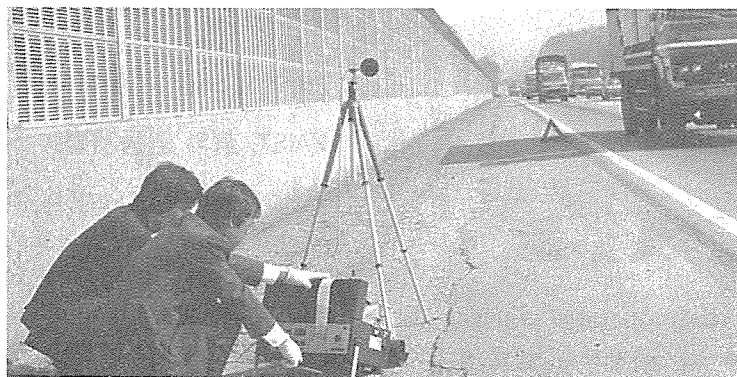
環境處, 科技자문회의서 보고

환경교육원·情報센터도 설치키로

國家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제4차 회의가 7월29일 서울大 호암생활관에서 金聖鎭위원장등 위원 10명과 환경처, 외무부등 주요 부처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처는 「환경과학기술발전방향」에 관한 보고를 통해 환경문제의 원천

구 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을 일부 개편하여 환경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전문연구기관과 환경교육을 전담할 「환경교육원」(가칭)을 신설하고 현행 환경연구원의 기능을 첨단과학기술분야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편키로 했다.



적 해결을 위해 '92년까지 환경과학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9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특히 김포군 금단면 일원의 25만평 부지위에 총 사업비 1천백50억원을 들여 環境科學종합연구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92년에는 우선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연구단지에는 국립환경연구원을 비롯 환경교육원과 앞으로 설치예정인 환경정보센터등이 들어서게 된다.

환경처는 또 현재의 국립연

이와 함께 환경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내외 각종 환경오염 방지기술의 체계화 및 전산화로 환경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환경정보센터를 국립환경연구원산하에 설치하여 국내외 환경과학기술정보를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또한 환경측정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현재 68개지점에 설치된 대기자동측정망을 '94년까지 92개측정지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노후장비의 교체는 물론 중금속순간분석기 이온크로마

토그래피등 첨단장비를 보강하고 수질자동 측정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96년까지 총4백92억원을 투입해 ▲원격탐사에 의한 환경오염측정기법개발 ▲폐기물의 자원화연구 ▲CFC대체물질개발연구 등 첨단 환경과학기술분야 연구사업을 産·學·研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環境개선계획안 심의

國家환경 보전위

국가환경보전위원회(위원장 鄭元植국무총리)는 제3차회의를 지난 7월29일 국무총리대접견실에서 개최하고 환경처가 제출한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안을 심의하는 한편 환경처의 주요환경동향과 보사부의 수질기준개선 및 정수장 수질검사결과등 5개안건을 보고받았다.

국가환경보전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 崔珪圭(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李相淵(내무부장관) 李鳳瑞(상공부장관) 陳念(동자부장관) 李鎭高(건설부장관) 權彝赫(환경처장관) 鄭壽昌(환경보전협회장) 金壽鶴(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朴金淳(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 盧在植(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장) 金相廈(대한상공회의소회장) 鄭助英(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李昌福(문화재위원회위원) 柳順昊(서울대농대교수)

「科學技術稅」 신설 검토 財源 확보위해 特別會計 설치도

科技處, 을 과학기술白書 발간

政府는 과학기술분야의 투자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세 신설, 과학기술채권발행등 특별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특별회계설치문제와 과학기술관계예산의 확대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최근 발행한 「'91년 科學技術白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투자확대를 위한 특별수단강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5년부터 방위세를 '81년부터 교육세를 각각 5년단위의 限時的 목적세로 설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왔다고 보고 과학기술투자의 중요성을 감안해 과학기술세의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정부가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채발행을 과학기술분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과기처는 현재 예산회계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과

학기술개발을 위해 조성된 재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과학기술개발특별회계의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姜博光위원 선임

基礎科學연구지원센터소장



姜博光소장

韓國科學財團은 7월26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基礎科學研究技援센터 金顯男소장 후임에 姜博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을 선임했다. 姜소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서울大 공대化學科卒 ▲ 캐나다 윌터루大 공학박사 ▲ 科技處 원자력개발국장 ▲ 駐美 과학관 ▲ 科技處 연구개발조정실장 ▲ KIST 상임연구위원

金永旭교수 선임

생산기술연구원장에

生産技術研究院은 7월26일

이사회를 열어 金永旭교수(亞洲大 산업대학원)를 제2대 원장으로 선임했다.



金永旭소장

◇ 金院長약력

▲ 서울大 工大졸 ▲ 美테네시大 공학박사 ▲ 고려大 교수 ▲ 科技處심의관 ▲ 亞洲大 산업대학원장 ▲ 韓國化學工학회 부회장

1테라와트급 레이저

KAIST, 蘇와 공동개발

韓國과학기술원(KAIST)은 우리나라가 현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1기가(10억) D램반도체가공에 필수장비인 1테라(1조)와트급 고툰력레이저를 소련과 공동 개발키로 했다.

KAIST는 7월8일 소련의 쿠르차토프 연구소와 공동으로 '95년까지 1테라급 레이저를 개발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에 소련의 레이저전문가 3~4명이 來韓, 구체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다.

韓·蘇양국은 금년부터 테라와트급 레이저제작 및 응용연구등을 추진하면서 '92년경에는 국내 우수기업체와 공동으로 X선 식각장비를 개발할 예정이다.

「在蘇고려인 科技協」 창설

초대회장에 차게오르기씨 · 지역대표 선출



在蘇高麗인 과학기술협회가 7월8일 모스크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함으로써 美國, 구라파, 日本, 캐나다, 中國에 이어 6번째의 在外한국과학기술자협회가 탄생했다.

在蘇科協의 결성은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世界韓民族 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에 11명의 在蘇과학기술자가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科總 閔寬植 명예회장을 비롯 鄭助英 회장직 무대행, 李傑三 사무차장이 한국 과학기술계를 대표하여 참석, 창립을 축하하고 1천달러의 지원금을 전달, 격려했다.

이날 총회에서 閔寬植 명예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랜 사회주의 국가 체제아래에서도 韓民族의 자긍심과 동포애를 발휘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산업체에서 과학기술인으로서의 긍지와 능력을 발휘하여 음으로써 高麗인의

우수성을 견지해 온 在蘇 과학기술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유서깊은 고도 모스크바에서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갖게 되는 「在蘇高麗인 과학기술협회가 앞으로 회원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母國과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민족의 열망을 성취하고 조국의 통일과 발전에 주춧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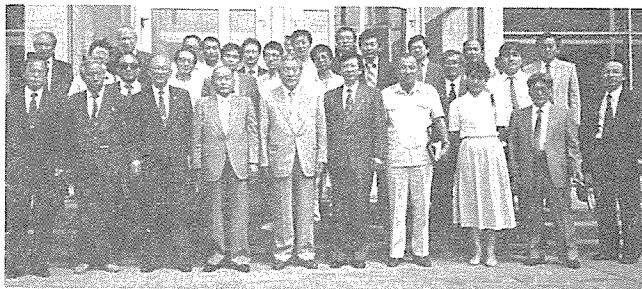
모스크바를 비롯 알마아타 타슈켄트 크라스노야르스크 쓰베르돌로브스크 키에프 두산베비스케트등 소련연방 8개지역에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스크바건축공과대학에서 열

린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초대 회장에 차게오르기씨(월드 미디어社 부대표), 부회장에 崔알렉세이(소련환경성연구원)·嚴베체스라브(우즈베크공화국 과학원 핵물리학연구소 책임연구원)·차이완(카자크 공화국과학원 대외문제담당부원장)씨등과 8개지역대표가 선출됐다.

소련에는 현재 수하물리학을 비롯한 기초과학과 컴퓨터 전자공학 자동차 동력학 농업수리학 기계공학등 과학기술전문분야에서 교수 연구원 기사등 1천여명의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閔寬植 명예회장을 비롯한 소련방문단 일행은 6일부터 10일간 소련에 머물면서 소련 연방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소련방과학아카데미를 방문하고 막사레프 로알드 유리에비치 차관등과 民間차원에서 韓·蘇 과학기술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韓·蘇 양국의 각 기관간 기존협약의 이행을 위한 과충의 협력을 다짐했다.

또한 駐蘇한국대사관을 예방, 공로명 駐蘇한국대사와 在蘇高麗인 과학기술협회육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閔寬植 명예회장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이 창립총회 후 「在蘇과기협」 지역 대표들과 기념촬영.

'91學術會議 夏季심포지움 盛了

7월2~5일 호텔 롯데월드서

「情報科學」등 7개분과서 最新논문 83편 발표



1천여명의 國內外韓國과학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特定과제와 연계한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相關정보를 교환한 '91國內外韓國과학기술자 학술회의 夏季심포지움'이 7월5일 잠실 롯데월드3층 국제회의실에서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됐다.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처가 후원(한국과학재단 협찬)한 이번 하계심포지움은 ▲물리학 ▲정보과학 ▲농수산학 ▲의약·생명과학 ▲수학·통계학 ▲지구과학 ▲토목·건축공학등 7개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물리학분과는 「반도체물리」를 정보과학분과는 「신호처리와 신

경회로망」, 농수산분과는 「전지적농업」 「수산자원의 이용」, 수학·통계학분과는 「대수학」 「전산통계」, 의약·생명과학분과는 「암의 분자생물학」, 지구과학분과는 「한국동해의 해양학적 연구」 「중규모 대류계의 역학」, 토목·건축공학분과는 「인공지능화된 공사체제개발」 「국토개발과 환경문제」 등을 과제로 하여 美國, 日本, 獨逸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在外과학기술자 15명과 국내학자 68명등 83명이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국내과학기술자 1천여명과 相關정보를 교환했다.

첫날 열린 개회식에서 鄭助英회장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약과 도전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길은 오직 과학기술력을 최대한 배양하고 제고하는 길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도가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 백만과학기술인은 산업발전의 고도화에 필요한 첨단기술의 개발은 물론 기술개발의 원천인 기초연구의 개발에 과감히 도전하여 기필코 우리의 힘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특히 在美과학자 趙允相박사(美國립보건연구원 국립암연구소 세포생화학연구실장)의 새로운 癌치료법 발표가 학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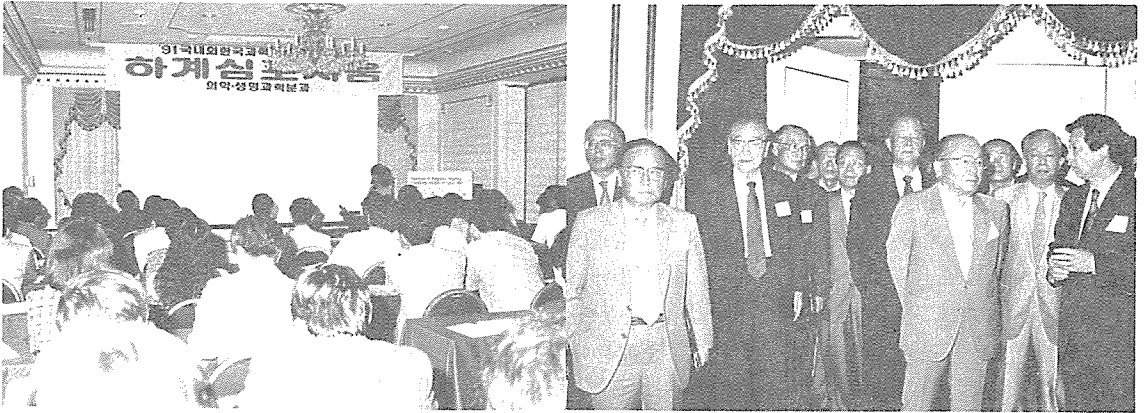
趙박사는 8-cl-cAMP란 새로운 합성화합물을 개발, 암세포증식을 억제시킴으로써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꿔놓는 획기적인 암치료법을 소개했다.

趙박사는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화합물질인 8클로로 cAMP를 지난 5월 말기유방암과 폐암환자등 2명에게 적용한 결과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면서 현재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8클로로 cAMP는 모든 생물체내 세포내에 존재하는 암세포 증식물질 「RI」를 억제하는 「R₂」를 세포내에 많이 생성케 함으로써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강개발로 인한 자연파괴와 대책」을 발표한 독일 베를린그대자원연구소 鄭東陽박사는 독

과학기술계뉴스



◇이번 심포지움에서 획기적인 암치료법 소개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趙允相박사의 학술발표장면(왼쪽)과 閔寬禧명예회장등 관련인사들이 학술발표장을 돌아보고 있다.

일의 하천 개발현황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하천개발도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鄭박사는 대규모댐의 건설, 直江공사등 인위적인 강개발은 하천의 완충작용을 할 배후습지를 없애고 대규모 홍수까지도 유발시킨다며 생태계파괴, 홍수유발, 지하수보충재해현상, 농경지 건조, 제방의 탐수현상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8천여만명의 독일에서는 상수도원의 80%를 지하수를 뽑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수력 적정후보자가 1백66개에 달하는 한국도 강유역 및 댐인근에서 지하수 시설을 갖추고 식수원을 취수할 경우 지층의 토사가 자연여과작용을 해 상수도원의 질을 높이고 정수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韓茂榮在美科協회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현재 미국에는 1만2천여명의 한국과학기술

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8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회원중에서 3백여명이 세계적인 과학자로 파악돼 있다고 말했다.

韓회장은 『한국의 기업들이 못만드는 물건은 거의 없지만 세계시장에 내놓았을때 최고의 제품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지난 4월30일자 Wall Street Journal지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앞으로 한국은 일류를 지향할 수 있는 몇가지 품목을 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1급제품을 생산해내

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우수한 고급두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韓회장은 끝으로 在美科協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29일~12월1일까지 美 메릴랜드주 록빌에서 「2천년대를 향한 기술동향」이란 주제로 창립20주년기념 심포지움을 열어 국내 과학기술계 인사와의 만남의 광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축하리셉션에서 金鎮鉉과기처장관이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종합氣候변화감시망 구축기로

科技處, 기후대책관·오존관측소등 설립

정부는 지구溫暖化방지대책의 일환으로 氣象廳에 기후대책관, 오존관측소, 온실 기체감시센터등을 설립, 종합적인 기후변화감시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科技處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주변의 기후변화를 관측할 전담기구인 기후대책관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기후관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4명정도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오존관측소를 세워 오존의 연구 조사 보호에 역점을 두는 한편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와 프레온가스등의 농도측정을 전담할 온실기체감시센터를 세워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오존관측소와 온실기체감시센터를 총괄조정 운영할 기후대책관은 우리나라 기후기록조사를 비롯 갖가지 기상관측작업을 벌이며 기상관련연수 지원사업, 세계기상기구(WMO) 등 국내의 기상 및 환경관련기구와의 업무협조등을 맡게 된다.

廢油처리기술 개발

특수장치소각...오일추출

자동차에서 나오는 廢타이어

와 廢油를 활용해 오일(등유·경유·중유등)을 뽑아내는 기술이 개발되어 자원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동차로 인한 각종 공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됐다.

韓國動力資源연구소 연료개발실 金東燦박사팀은 벽산개발

(대표 金喜瑾)과 공동연구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페타이어와 폐유를 1대2의 무게 비율로 섞어 특수장치로 소각시켜 등유·경유·중유등의 오일을 회수해내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파이렛 플랜트에서의 실험을 통해 페타이어와 폐유의 전체무게의 절반정도가 오일로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각시키고 남은 카본블랙은 아스팔트보강재로 재사용할 수 있다.

보호 野生植物 추가지정

環境處, 50여종 연내최종 확정

韓國특산종인 회양목등 20種을 비롯 멸종위기종인 엽란등 10종, 감소추세종인 개불알꽃등 2종, 희귀종인 백서향등 21종등 모두 53종의 식물이 올해중에 특정야생식물로 추가 지정된다. 環境處는 7월17일 특정야생식물 지정을 위한 국립환경연구원의 자연생태계 조사결과가 최근 통보됨에 따라 연내대상 식물을 최종 확정, 발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정야생동식물은 '89년 지정·보호되고 있는 금강초롱, 비단벌레, 사슴풍뎡이 등 59종의 식물과 33종의 특정야생동물을 포함, 모두 1백40여종으로 늘게 됐다.

이들 특정 야생식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

게 된다. 특정야생식물로 추가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야생식물은 다음과 같다.

◇한국특산종 = 왕동굴레 자주솨대, 여우꼬리풀, 함양원추리, 나도승마, 긴잎회양목, 한라돌창포, 오동나무, 국화방망이, 털중나리, 회양목등 20種.

◇멸종위기종 = 갯쟁이풀, 섬시호, 미선나무, 자란, 순채, 파초일엽, 엽란, 모새나무, 황칠나무, 백량금등 10種.

◇감소추세종 = 개불알꽃·땅나리등 2種

◇희귀종 = 무엽난·대홍난·나도제비난·왕초피·뒤장풀·아기얇은부채·박달목서·홍만병초·팔손이·목련·백서향·큰솔나리·큰새우난·너도밤나무등 21種.

산업체 專門인력 양성주력

KAIST 洪陵캠퍼스, 碩·博士과정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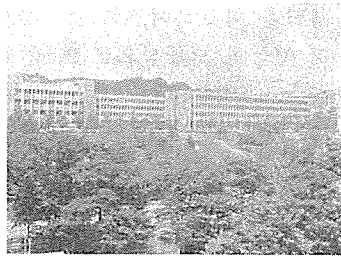
韓國 과학기술원 (KAIST)은 92학년도 봄학기부터 서울 洪陵캠퍼스를 산업체 및 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운영키로 했다.

忠南 大德연구단지로 이전한 KAIST의 서울分院형태로 운영될 洪陵캠퍼스는 '92년 봄학기부터 이공계 대학졸업자중 산업체 및 연구소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碩·博士과정을 개설, 석사200명·박사100명 규모를 교육시키고 앞으로 산업체의 수요에 따라 모집학생규모를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개설될 학과는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산업체 및 연구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및 자동화 ▲컴퓨터 및 회로설계 ▲전자재료등 4개분야.

개설과정은 석·박사과정 모두 직장을 휴직하고 일정기간 동안 학위과정을 수료하는 全日制와 퇴근후 또는 일정시간 동안만 강의 및 실험에 참가하는 時間制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이 洪陵분원의 입학대상은 이공계대출자중 산업체 및 연구소 현장근무자로 제한하며 선발은 소속기관장의 추천과 서류전형 및 면접, 영어시험으로 하고 입학후 2년이내에 자격시험을 치른다는 방침이다.



◇ KAIST홍릉캠퍼스 전경
이 석·박사과정의 재원은

수익자부담원칙(학생납입)으로 하되 교육위탁기업 및 연구소 등의 규모나 능력등을 감안, 교육경비부담에 차등제를 도입키로 했다.

KAIST 洪陵캠퍼스는 3만3천여평의 부지에 교육연구시설 1만1천6백여평, 주거시설 5천3백여평, 부대시설 4백여평이 들어서 있다.

한편, KAIST는 학생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잔여시설은 과학기술관계기관등에 대여할 계획이다.

海洋硏종합조사선 「온누리호」 진수식

노르웨이서, 내년부터 본격綜合해양탐사

종합적인 해양탐사활동에 나서게 될 韓國海洋연구소(소장 朴炳權)의 「온누리호」진수식이 7월24일 노르웨이 칼손조선소 현지에서 거행됐다.

「온누리호」는 총톤수 1천3백톤규모로 길이 63.8m, 폭 12m, 순항속도 13.5노트로 승선인원은 선원과 연구원41명이 탑승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공식이후 선체가 완료돼 모델테스트를 마친 상태로 현재 배관 및 의장공사가 진행중이며 장비 장착등이 모두 끝나는 내년 1월중엔 발주처인 해양연구소로 인도될 예정이다.

이 선박은 90여종의 조사장비와 각종 특수장비를 갖추게 돼 해저 1만1천미터, 수심의 2배이상 너비 해역의 음향을 측

정할 수도 있으며 다이나믹위치시스템이 부착, 전후좌우 3백60도 회전이 가능하다.

특히 모든 연구활동이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되는 이 조사선은 해류·조류·해풍등 바다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항해명령을 내리게 되는 시스템이외에도 기관실 무인화, 얼음에 부딪쳐도 손상되지 않는 특수설비, Deep Sea카메라 시스템, 지진탐사장치, 수중물고기의 크기·종류·양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과학어군탐지기 등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 온누리호는 우리나라 해역 전반에 걸친 탐사 및 개발뿐만 아니라 국제 공동탐사 및 심해탐사등도 가능케되어 해양탐사의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PC 産業 육성대책 수립

科技處, 컨소시움 · PC정보시스템구축

과학기술처는 정보화진전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PC산업의 육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련부처와 기업·정보산업단체 등 관련기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과기처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PC수출이 25%나 감소되는 등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지난 7월1일 유통시장 개방으로 일본, 대만, 미국 등 경쟁국가들의 국내시장 진출 움직임에 따라 내수시장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PC산업은 그동안 주로 미국 CLONE(호환성기종 생산업체)들의 OEM 공급을 위해 주요부품을 수입하여 단순 조립·생산·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로 인해 부품표준화 및 기술축적에 실패하였고, 지난 몇년간의 임금 상승과 환율인하 등 국제경쟁여건의 변화에 따라 OEM 수출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등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과기처는 원활한 부품조달을 위해 업계공동으로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부품표준화 및 부품공동수입을 추진하고, PC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차세대 경쟁우위기술을 미리 예측 집중개발함으로써 기술경

쟁력을 확보하며, G7 소프트웨어 연구회를 중심으로 PC용 핵심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여 PC 수요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방지·구매제도개선·사후서비스 강화 등 환경조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國際수학올림피아드 韓國, 종합성적 17위

우리나라는 7월12일부터 23일까지 스웨덴 시그투나에서 열린 제32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銀메달 1개, 銅메달 4개를 획득, 종합성적 17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국인 中國을 비롯한 56개국과 臺灣등 3개국이 없져버로 참가, 2백41점을 얻은 蘇聯이 우승을 차지했고 2위는 中國(2백31점), 3위는 루마니아(2백25점)가 각각 차지했다.

2백52점 만점에 1백51점으로 17위를 기록한 한국은 崔丙燾(서울과학고)등 6명이 출전하여 崔군이 은메달을 수상했고 李丞均(서울영동고3) 朴鍾元(서울과학고2) 朴志雄(서울과학고2) 權在均(대구과학고2)군등 4명이 동메달을 따냈다.

우리나라는 '88년 호주 캔버라대회에서 22위, '89년 서독 브

라운쉬바이크대회에서 28위, '90년 중국 북경대회에서 32위를 차지했으나 올해 17위로 올라서 역대참가대회중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金영훈 · 李승우군 首席 대학생 數學 경시대회서

지난 6월29일 실시된 제10회 전국대학생 수학경시 대회에서 김영훈군(서울대수학과)과 이승우군(KAIST 학사과정·물리학과)이 수학전공분야와 비수학전공분야에서 각각 수석을 차지했다.

大韓數學會가 주최하고 教育部가 후원해 지역별로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 수학전공분야에서는 오승상군(KAIST 학사과정·수학과)과 강남규군(서울대수학과)이 우수상을 비수학전공분야에선 송승현군(KAIST 학사과정 물리학과) 심상연군(KAIST 학사과정 물리학과)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情報管理간담회 개최

韓國建設技術研究院(원장 李潤植)는 지난 7월19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세미나실에서 정보관리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기술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이 간담회에는 건설업계와 건설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건설정보센터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건설업정보, 자료실의 문제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韓國, 연평균기온 0.4℃ 상승

氣象廳분석결과...강수량도 많아져

최근 30년동안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연평균기온이 0.4℃가 상승했으며 특히 서울과 蔚山이 각각 0.7℃가 높아져 기온의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을릉도와 추풍령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氣象廳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溫暖化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과거 30년(1931~1960)과 최근 30년(1961~1990)과의 기후변화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14개 주요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의 新·舊평년값을 비교·분석한 결과가 같이 밝혀졌다.

기존 14개지역의 관측자료를 중심으로 본 이번 조사에서 대구, 제주, 전주, 강릉, 광주, 포항지역에서는 0.4~0.6℃가, 해안지방인 인천, 부산, 목포, 여수에서 0.2~0.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4계절 모두 기온이 상승했으나 특히 봄철이 가장 크게 상승(0.7℃)되었고 강수량변화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국적으로 연강수량이 평균 38mm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光州가 134mm 증가하여 증가폭이 큰데 반해 을릉도에서는 257m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계절별로는 봄철과 여름철에 강수량이 다소 증가한데 반해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氣象廳은 WMO 기준에 따라 지난 '61년부터 '90년까지의 30년 氣候平年값인 「한국기후표 제1권」을 발행, WMO회원국을 비롯한 외국과 국내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새 기후평년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기후

평년값은 지난 '82년에 발행된 것으로 '51~'80년까지 당시의 26개 측후소 기후자료 평년값이 수록된 데 비해 이번에 발행한 기후표에서는 '70년 이후에 발족된 관측소를 포함시켜 총 68개기관의 자료와 요소별 표준편차등을 수록하여 내용을 다양화했다.

이번에 새로 발행된 「한국기후표 제1권」에는 14개 기후요소에 대한 日別·旬別 평년값만 수록하였고 이어서 금년 9월에는 月別 평년값 및 極값을 수록한 「한국기후표 제2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불없는 固體燃料 개발

化學研, 수용액과 섞여 100도정도 熱발생

불을 지피지 않고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레저식품용 고체연료가 한국화학연구소 徐胎洙박사팀에 의해 개발돼 곧 시판될 예정이다.

이 고체연료는 고형분과 수용액으로 구성돼 있는 이들을 따로 보관했다가 조리 등 필요할 때 수용액속에 고형분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열을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형분은 석회석 생석회 소석회 같은 석회질원료에 점도를 조절하고 화학반응을 제어하는 첨가제를 섞어 만들고 수용액은 물에 15~30%의 염화마그네슘 또는 염화칼슘이 녹아있는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고체연료는 반응이 시작된 후 2분뒤 부터 약 8분간 섭씨 1백도내외의 열을 낸뒤 30분까지 70도내외의 온도가 유지돼 야외에서 각종 포장식품을 조리하거나 데우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 연료 1kg이 낼 수 있는 열량은 2백78K 칼로리. 즉 5백30입방m의 식품을 섭씨 80도정도로 데울 경우 고형분은 1백30g, 수용액은 1백50g이 필요하다는 것.

이 제품은 비연소성을 지녀 화재나 인체의 손상우려가 없고 취급 및 수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이 연료는 주택난방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값은 부탄가스의 3분의1 정도로 예상.

과학기술계뉴스



한국농업기계학회

韓國農業機械學會(회장 高學均)는 7월12~13일 양일간 경남 창원군에 위치한 대동공업(주) 훈련원에서 제16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일본 농업기계학회 북해도지부와 합동으로 개최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전차, 시설원예의 기계화 현황 및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측에서는 李英烈(농업기계화연구소)소장 등 4명이, 일본측에서 南部悟(북해도대)교수 등 3명이 7편의 주제를 발표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학회상 시상과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는데, 학회상에는 崔圭洪(건국대)교수가 공로상을, 柳寬熙(서울대)교수가 학회상, 奇萬景(대동공업(주) 기술연구소)과장이 기술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90년결산과 '91년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한국고무학회

韓國고무學會(회장 白奉基)는 7월4~6일 3일간 大田에 있

는 유성관광호텔에서 제22회 하계고무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金振國(경상대)씨의 「고무산업용 혼합 공기계의 이해」, 尹東日(금호석유화학(주))씨의 「BR 및 S-SBR의 기술변천과 그 제조법」, 伊吹就司(일본 Mektron(주))씨의 「Acrylic Rubber 시장의 최근동향」, 中田滿行(일본전기화학공업(주))씨의 「클로로프렌 고무의 배합기술」, Sanit Samosorn(태국 농무성)씨의 「태국천연고무 산업의 그 개발방향과 전망」, 溫龍鉉(금호EP고무(주))씨의 「EPM/EPDM의 구조인자와 가공성 및 물성에 관한 고찰」, Richard A. Steinke (VTI Chemicals Inc)씨의 「폴리우레탄 신공법의 미래와 오늘」등 7편의 강연에 이어 특별토론이 있었다.

한국식품위생학회

韓國食品衛生學會(회장 申光淳)는 韓國獸醫公衆保健學會(회장 金順在)와 공동으로 지난 6월28일 보건환경연구원 강당에서 '91년도 정기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국가적 당면과제인 농축산물 수입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는 식품의 위생적 질을 높이고 우리 식품에 대한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학술회의는 「동물성식품의 안전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李容旭(서울대)씨의 「동물성

식품의 위생관리 현황과 전망」, 朴鍾鳴(농촌진흥청)씨의 「축산식품의 유해물질잔유와 그 관리방법」등 5편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대한공업교육학회

大韓工業教育學會(회장 李載元)는 7월5일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제1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직업교육 확충과 공업교육의 과제」라는 주제하에 주제발표와 토론, 분과별발표 및 토의,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康基柱(용산공고교장)씨의 「공업고등학교 교육의 성격과 교육방향에 관한 구상」, 辛圭(충북 교육청 장학사)씨의 「직업과정 위탁교육과 공고교육의 역할」등 4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국생화학학회

韓國生化學會(회장 鄭兌和)는 7월10~11일 양일간 전경련회관에서 제2회 산·학·연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신물질 창출을 위한 생물활성 연구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李英翊(유전공학연구소)씨의 「초고속·초정밀 AIDS진단 시약개발」, 金成器(화학연구소)씨의 「신규항진균성 항생물질탐색 및 개발」등 42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과학기술계뉴스

한국육종학회

韓國育種學會는 지난 6월8일 이리시 송학동에 위치한 호남 작물시현장에서 제23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입회장에 박根龍(호남작물시험장장)씨, 부회장에 沈載昱교수(서울대) 등 9명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蔡永岩씨, 총무에 李敦求교수(서울대)가 선임되었다.

한편 학술발표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발표와 토의로 진행되었는데 제1부는 주로 유전에 관한 것으로 申文植씨등이 공동연구한 「수도 백엽고병 고도저항성 유전자좌에 위치한 복대립 중도저항성 유전자」등 1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제2부는 주로 육종에 관한 것으로 張英錫씨등이 공동연구한 「유채 1대잡종과 고정계통의 수량구성형질 발현에 따른 수량과 도복관계 비교」 등 1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韓國原子力産業會議(회장 安秉華)는 전국 남녀고교생을 대상으로 원자력평화이용에 관한 작문을 현상모집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 작문모집행사는 과학분야, 특히 첨단과학인 원자력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작문제목은 ▲왜 원자력발전이 필요한가 ▲깨끗한 환경 깨끗한 에너지 ▲자원없는 나라의 에너지 확보의 길 ▲원자력에 얽힌 이야기 등 네가지 중 하나를 택일, 200자 원고지 12매 이내로 작문해 9월14일(토)까지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홍보부(여의도 사서함 1021호)로 보내면 된다.

한국음향학회

韓國音響學會(회장 安秀吉)는 창립 10주년기념 한·일합동 음성신호처리 학술행사를 7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예술의 전당」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7월22일부터 23일 이틀간의 심포지움에서 국내외 전문가 170여명이 참석하여 120여편의 논문발표가 있었고, 24일부터 25일까지 「자동통역전화시스템의 기술개발전략」을 과제로한 金吉男교수(한국과학기술원)의 「자동통역 프로젝트개요」 등 한·일간 4편의 주제발표에 이어 陳庸玉교수(경희대) 사회로 학술토론을 벌여 최근의 한·

일양국간의 음성학연구 성과를 교환했다.

대한수학회

大韓數學會(회장 金宗植)가 주최하는 韓國數學올림피아드 여름학교가 올래 처음으로 개설돼 7월29일부터 8월17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한국과학기술원 大德캠퍼스에서 열리고 있다.

교육부, 과기처, 한국과학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 여름학교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의 출제 경향을 이해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내년 7월 소련에서 열릴 제33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 참가할 한국대표선수단의 집중적인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여름학교의 참가학생은 지난 7월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제4회 전국 고등학교 수학·과학경시대회에서 수학부문입상자 40명과 제1회 전국중학교수학경시대회 입상자 20명등 60명이다.

이들은 이번 여름학기 종료 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1차 통신강좌를 통해 수학문제풀이를 생활화하게 되며 이중 30명정도를 엄선, 내년1월 한국수학올림피아드겨울학교에서 더욱 심도있는 훈련을 받게 된다. 또한 내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제2차 통신강좌를 거쳐 제33회 IMO에 참가할 대표단을 최종 선발하게 된다.

科總 회원단체 8월중 학술행사 계획일정

단체명	대표자	행사명	일시	장소
한국통신학회	양승택	하계종합학술발표회	8.2-3	경북대
한국표면공학회	백영현	제1회 진공박막강습회	8.9-10	과학기술회관
대한금속학회	김연식	제5회 재료·물성 심포지움	8.9-11	순천대
대한약학회	안영근	신약개발국제학술대회	8.18-24	스위스그랜드호텔
대한금속학회	김연식	Robert A. Rapp교수 초청 세미나	8.16-17	서울대
대한금속학회 · 한국구조공학회	김연식 · 강춘식	제2회 응고기술심포지움	8.2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식물학회	김윤식	제5회 식물생명공학 심포지움 및 워크숍	8.23	유전공학연구소

한국품질관리학회

韓國品質管理學會(회장 李相鎔)는 지난 6월1일 한국공업표준협회에서 '91년도 춘계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연구발표회에서는 辛容伯(우주대)씨의 「TQC 활성화를 위한 국내 소집단 분임조 활동의 현황문제점과 개선방안」, 安文榮 · 李根熙(한양대)씨의 「한국제조업의 생산관리 체제의 발전전략」등 1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윤활학회

韓國潤滑學會(회장 文卓珍)는 지난 6월21~22일 양일간 이수화학공업(주) 울산공장에서 '91년도 제13회 학술강연회 및 공장견학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강연회에서 A.KU-

BO(교토대학)씨의 「Lubrication and Surface Distress of Loaded Tooth Flank of Gears」, 李京淳(쌍용정유)씨의 「윤활기유 제조 기술의 동향」 등 2편의 강연과 金榮煥(대한공업전문대)씨의 「Mo-DTC의 마찰특성에 미치는 타첨가제의 영향」 등 6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대한전기학회

大韓電氣學會(회장 黃煥文)는 7월 18~20일 3일간 강원대학교에서 '91년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기, 전자, 정보, 제어분야 회원들의 연구성과 및 개발사례발표와 앞으로의 기술개발추세에 대한 정보교환 및 토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학술발표외에도 산업시찰, 관광프로그램 등의다채로운 프로그램으

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李宗薰(한국전력기술(주) 사장)씨의 「2,000년대 에너지 수요전망과 원자력의 역할」, 尾出和世(일본전기학회 부회장)씨의 「21세기 중기의 세계의 경제·에너지문제」등 2편의 특별강연과 산업일반, 전기기기, 전기재료등 10개분야에서 「전자현미경의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등 200여편의 최신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한국자동차공학회

韓國自動車工學會(회장 李成烈)는 6월11일 현대자동차(주) 마북리연구소 소재 현대인력개발원 생활관에서 '91년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스파크점화 기관의 녹킹 측정에 관한 연구」등 다양한 논제로 20여편이 발표되었다.

과학기술계뉴스

한국가정관리학회

韓國家庭管理學會(회장 劉永珠)는 지난 6월22일 경희대학교에서 제14차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업보고, 재무보고, 임원개선 등이 있었고, '92차기 회장(임기 '92년시작)에 徐炳淑교수(한양대)를 선출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연구공모에 당선된 李蓮淑(고려대)교수의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를 비롯 박사학위취득논문인 金外淑씨의 「도시기혼 여성의 여가활동 참여와 여가장애」 韓慶惠씨의 「사회변동에 따른 한국남자의 결혼연령의 변화」 등이 발표되었다.

한국부식학회

韓國腐蝕學會(회장 金冕燮)는 7월4~6일 3일간 과학기술회관의 회의실에서 제11회, 부식 및 방식강습회를 개최했다.

매 2년마다 열리고 있는 이 강습회는 산업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료의 부식문제와 방지대책을 다루는 현장 기술인들과 학교, 연구소 및 방식관련업체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지식의 교류를 이룸으로써 점차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식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연구소·산업체가 참여한 이번 강습회에서는 「부식의 원리」, 「Galvanic and Local Corrosion」, 「Concrete Rebar 부식」, 「부식도 측정시험방법」 등 11편의 강연이 있었다.

한국동굴학회

韓國洞窟學會(회장 洪始煥)는 지난 6월28~29일 이틀간 건국대학교 강당에서 제주도동굴애로회의 협찬으로 학회간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첫날 건국대학교에서 「동굴의 환경보전」, 「고수굴의 환경보전」, 「협재굴의 환경보전」에 관한 발표와 토의가 있었고, 29일에는 충북 단양 고수동굴 현지에서 「동굴개발」, 「동굴관리」, 「세계의 동굴」에 관한 자유토론과 고수굴의 「환경보전」에 관한 실태조사확인이 있었다.

대한금속학회

大韓金屬學會(회장 金淵植)는 6월18~19일 양일간 경남 창원 소재 한국기계연구소 강당에서 '91년도 제1회 가공분과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기계연구소에서 초청한 호리에 유주루연구관(시마네현립 공업기술센터)을 연사로 하여, 「용사와 그의 가공법의 복합화 및 LPPS 피막의 특성」, 「Plastic/Ceramics 복합피막」, 「일본 용사기술의

소재 및 현황」 등 6편의 발표가 있었다.

대한불임학회

大韓不妊學會(회장 蔡洙應)는 6월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91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柳大烈(유전공학연구소)박사의 「Transgenie Animal 개발에 있어서 분자생물학의 활용」, 兪显濬(KA-IST)박사의 「Application of P. C.R.」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李鎬榮(연세대)교수의 「성의학적인 면에서 본 인간생식」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한국목재공학회

韓國木材工學會(회장 鄭希錫)는 지난 7월5일 중부임업시험장에서 '91년도 하계총회 및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강연으로 사카키 히카루(일본 京都大 목질과학연구소장·목재학회장)박사의 「최근 목질재료의 개발과 연구동향」에 관한 발표에 이어 학술연구발표회에서는 李丙根·李昌彦(영남대)씨의 「목질 Biomass의 연속적 염산-cellulase 효소 가수분해에 의한 cellulose의 당화」, 韓奎成(京都大)씨의 「성형가능한 목재-플라스틱 복합체의 제조와 그 물성」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